

#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챌린지' 본격 추진

### 강 시장, 시민들과 시내버스 출근 시의회·교육청·공공기관 등 릴레이 '대·자·보 도시' 시민공감 확산 나서 "사람 중심 교통체계 대전환 추진"

광주시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시민 공감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인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챌린지'에 본격 나섰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보행자의 날(11월11일)'을 맞아 강기정 시장이 '1250원 대중교통 출근길'에 나섰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6시30분 집을 나서 북구 문산중 정류장에서 '문흥18' 버스를 타고 17개 버스정류장을 지나 경신여고 정류장에서 '좌석02'로 환승, 4개 정류장을 더 지난 뒤 광주시청에 도착했다. 전체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다.

강 시장은 출근길 시내버스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대·자·보 도시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귀담았다. 강 시장은 "시내버스는 정시성과 연결성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11일 북구 문흥동 자택에서 시청까지 버스를 타고 출근하며 시민과 대화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 강화돼야 하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시내버스로 출근했다. 또 광주전변, 도시철도2호선 1단계 17km 구간 등을 걸으며 현장을

살폈다. '대·자·보 도시' 실현을 위한 행보였다. 광주시는 강 시장을 첫 주자로 대·자·보 도시 시민공감 정책인 '대·자·보 출퇴근 챌린지'를 본격 시작한다.

이 챌린지는 광주를 지속 가능한 도시

로 만들기 위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다.

강 시장을 시작으로, 광주시의회, 교육청, 공직자,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도시철도2호선 개통 시기에 맞춰 범시민 대·자·보 실천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증사진을 게시하고 다음 사람을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민들 역시 대·자·보 실천 후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인증사진을 필수해 시태그(대·자·보도시광주, 녹색교통릴레이챌린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강 시장은 "대·자·보 도시는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개통과 함께 도시 교통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으로 본격화될 것이다"며 "대·자·보 실현을 위해서는 담대한 정책과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광주시는 시민들과 토론하고 대중교통 이용 경험을 늘리는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광주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자·보 도시 비전을 세우고, 시민 인식 개선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공간 조성 △대·자·보 도시 공론화 △시민 스스로 기획·실천 △사람 중심의 교통 흐름 등 실증·소통·참여에 연결을 더한 '시민공감정책 실행 계획 3+1'을 적극 추진한다.

광주시는 '대·자·보도시 광주' 프로젝트의 성공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 지난 11월5일 첫 회의를 통해 대·자·보 도시 비전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지난 9일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자·보도시 광주'를 위한 시민 속의 및 공동이행 협약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시민실천단 100여 명이 참여해 대·자·보 도시를 위한 '시민 제안서'와 '광주시민의 다짐'을 작성하고, 실현을 위한 다짐과 협력을 공식 선언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광주시, '무등산·영산강 트레일 챌린지' 진행

### 관광공사·블랙야크클럽 협업

광주시는 광주관광공사, 블랙야크알파인클럽과 함께 무등산과 영산강 Y벨트 일부 권역을 연계한 '광주 더블 트레일 챌린지'를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더블 트레일 챌린지'는 국내 최초로 산-강을 연계한 챌린지로, 광주가 자랑하는 대표 명산 무등산의 13km 구간과 빼어난 풍광의 영산강 자전거길 10여km를 걷고, 자전거로 달려 완주하는 것이다.

도전방법은 블랙야크 알파인클럽 앱에 가입한 뒤 서석대, 인왕봉 정상 등 무등산 2곳과 자전거길 안내센터, 어등대교, 광신대교, 산동교, 첨단대교 등 영산강 5곳 등 총 7곳의 인증지에서 GPS 발도장과 사진 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영산강 인증지는 자전거길 안내센터에서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든 인증 지점에서 인증을 완료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완주 기념품을 남도관광센터(동구 금남로 245, 2층)에서 지

급한다. 이와 별도로 블랙야크 알파인클럽에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6000 BAC코인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챌린지 구간 가운데 지난 10월26일 새롭게 들어선 무등산 인왕봉 정상석에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왕봉은 군사시설로 인해 지난 1966년부터 일반인의 발길을 허용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 상시 개방됐다. 이후 정상석을 설치해달라는 탐방객들의 요청이 잇따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인왕봉에 해발고도가 표기된 표지석을 설치했다.

'광주 더블 트레일 챌린지'는 지난 1일 시작 이후 10일 만에 참가자 200명을 돌파했다.

한 참가자는 "KTX를 이용해 빠르게 광주로 이동할 수 있었고, 트레일 챌린지를 통해 무등산과 영산강 등 멋진 경관을 볼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국내 최초 산과 강을 연계한 이번 트레일 챌린지 운영 결과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코스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농촌형 보육서비스' 전국 최다 선정

### 돌봄교실 등 18개 시·군 65곳 21억 투입 농촌 보육여건 개선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지역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2025년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에 18개 시·군 총 65곳이 선정되는 등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농촌아이돌봄지원' △보육 시설이 부족한 읍면지역을 이동식차량으로 방문해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찾아가는돌봄교실' △농번기 4~8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 운영을 지원하는 '농번기돌봄지원' 사업이다.

특히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대상 아동 연령을 기존 2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2세~초등학교 4학년으로, 운영 기간도 기존 4~8개월에서 4~10개월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에 농촌 아이돌봄지원 28개소, 찾아가는 돌봄교실 3개소, 농번기 돌봄지원 34개소가 선정돼 총 21억1800만원의 예산을 농촌지역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도는 영농철 여성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전남도 농가도우미(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등이 11일 나주 종합스포츠타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후위기 대응 농업 대도약을 선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첨단 인프라로 '글로벌 농업시대' 실현"

### 나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김 지사 "미래농업, 전남이 선도"

전남도는 11일 나주 종합스포츠타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농업에 첨단 인프라를 구축해 미래농업을 선도, '글로벌 전남 농업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11월11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주최하고 (사)전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상임대표 김향숙)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권 전남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유관기관장과 농축임업인 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한 해 전남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의 헌신을 담은 주제영상을 시작으로 전남도 농업인대상 수여, 유공자 표창, 주제공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유통가공분야 김주호 대표 등 6명이 영예의 농업인대상을 수상했으며, 농업회사법인(썬너비너스 명동주 대표이사 등 9명이 산업포장 등 정부포장을 받았다. 전형남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 회원 등 14명은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모든 참석자들은 'OK! Now 전남, 농업으로 하나되는 미래 전남' 퍼포먼스를

통해 전남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념사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벼멸구 피해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속에서도 한 해 농사를 정성껏 마무리한 30만 전남 농업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위대한 전남 농업인들과 함께 '글로벌 전남 농업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장성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와 해남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나주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등 첨단농업 인프라를 통해 농업의 미래를 전남이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오지현 기자

## 광주시-택시업계, '택시안정화' 상생 협약

광주시가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대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정등광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국승두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문흥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본부의장, 안운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

본부본부장, 최진영 광주지역플랫폼택시노동조합 의장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유류비·인건비 상승 등 택시업계의 경영 위기에 어려움을 공감하며 택시운송사업안정화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정화 지원계획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대당 4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장려금 확대 지원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재추진 △택시요금 체계 현실화 검토 △택시부채 의견수렴 등을 담았다.

이번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택시조합들은 광주시 택시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승차 거부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캠페인과 직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병하 기자